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Near Environmental Home Production
Activ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차 성 란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 Moon, Sook Jae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Instructor: Cha, Seong Ran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monstrate the wide scope of the home production activit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various near environmental home production activities, seco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near environmental home production activ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Questionnaires from 729 housewives in Seoul a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Homeproduction activities with neighbors are influenced by the housewives' physical health. In the case of adult children, family life cycle, number of family members etc. are influential variables. In the case of step-parents and housewives' parent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family life-cycle etc. are influential variables. In the case of adult sisters, housewives' birth order is influential variables. Home production activities utilizing facilities in the near environment are influenced by

high-rise apartment, housing tenure etc.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organizations are influenced by family life cycle and similarity to neighbors.

2.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organizations, home production activities with adult sisters and brothers and home production activities with adult children have positive effect and home production activities utilizing facilities in the near environment have nega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housewives. And the near environmental satisfaction a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housewives.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ncluding the near environmental home production activities to the home production is rational.

I.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는 가정생산의 기계화, 사회화로 가정에서의 육체적인 노동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의 향상으로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가정생산활동의 절대량은 감소되지 않는 가정생산활동의 양적,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남편은 직업생활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정신적, 관리적 노동은 주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가정생산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직업생활을 제외한 모든 가정생활을 주부가 전담하게 된다.

이같은 가정생산의 내용적, 질적인 변화는 생산활동의 장소를 가정 외부로 확장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합리적 구매를 위한 정보탐색, 시가나 진정 등 친척과의 의례적 관계유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원봉사활동, 조직참여활동, 교통시간(travel time) 등은 가족원이나 가정이라는 물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가정을 둘러싼 정서적, 물리적 근접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서 이같은 활동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활동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밖에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은 생산적 활동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생산에 대해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들도 가정생산 영역을 의, 식, 주, 가정경영, 가족돌보기 등으로 나누면서 단지 가정내에서 이루어

어지는 활동들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가정생산의 범위를 가족원과 가정내로 제한한다면 시장상품으로의 대체가 심화되는 현대사회로 갈수록 가정생산의 범위는 점차 좁아질 것이며 결국 가정생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가정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주부들이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써 불만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실질적이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생산을 화폐가치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때 가정생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가정생산의 주담당자인 주부들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므로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가정생산에 포함되는 생산적 활동임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어떠한 활동이 가정생산에 포함되는 생산적 활동임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이 익히 가정생산활동으로 여겨져오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족원들의 욕구충족(문숙재, 1990)과 나아가 생활만족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활동들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며 이로써 가정관리사가 담당하는 가정생산의 범주에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생산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로써 주부들의 가정생산에 대한 가치인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가정생산의 화폐가치 평가에 반영시켜 실질적이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주부노동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의 정의

가정생산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Beutler와 Owen, 1980, Beutler, Owen 그리고 Hefferan, 1988, 문숙재, 1990, 차성란, 1993) 아직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정생산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그러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와 학문 분야에서의 새로운 평가와 함께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家事勞動’은 가족원의 광범위한 생명활동을 포함한 노동력의 재생산(伊藤 外, 1980),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의 창출(Walker와 Woods, 1976) 등으로 정의되고 있어 가사노동이 가족과 가정에 관련된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투입되는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의미가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家政勞動’은 ‘가정이라는 한 시스템의 관리 및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따른 결정과 책임을 수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정내의 노동’을 포함하는 노동(임정빈, 1984), 또는 ‘가정에서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정영금, 1989, 문숙재, 1990)으로 개념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정노동은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나타난 용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가정생산 중 투입요소로서의 노동적 측면이 강조되는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Reid는 ‘家計生産(household 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가정노동의 생산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가정노동은 시장대체물이 있으며 따라서 그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Beutler와 Owen(1980)은 ‘생산’은 가계생산의 개념적 기초가 되는 시장대체물 유무와 같은 시장경제에서의 가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효용’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을 간파하여 시장생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까지를 모두 생산에 포함시키는 ‘가정생산(home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생산활동모델’에서 가정생산활동은 가정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노동임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 가사노동, 가정노동, 가정생산활동 등의 용어는 투입적 관점에서 본 것인데 비해 가계생산, 가정생산은 산출적 관점에서 본 용어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가정노동과 가정생산은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생산과 가정생산활동은 전자가 산출, 후자가 투입적 관점에서 본 용어이지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생산’은 ‘생산활동’의 개념과 ‘생산물’의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정생산은 투입요소로서의 노동과 산출요소로서의 생산물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되 특히 노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가정생산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는 Beutler, Owen과 Hefferan(1988)이 시장생산활동이나 정부의 생산활동에 대응되는 가정에서의 생산적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서 ‘인접 및 공동활동(propinquous home and communal ac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인접 및 공동활동에는 가정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생산활동,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생산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정생산활동을 포괄하는 용어이나 일반적인 용어로 수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근접환경은 물리적으로 가깝거나 물리적으로 반드시 가깝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환경을 말한다(디컨과 화이어버, 1990).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근접환경은 물리적인 거주지와 사회적 배경의 두 요소로 구성되며 근접환경자원은 이들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접환경 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은 곧 근접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가정생산의 범위

가정생산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또한 어떤 활동들을 가정생산활동으로 보느냐 하는 생각이 담겨있다. 임정빈(1984)은 ‘家事勞動’이나 ‘家事作業’이라는 용어는 가정생활을 위해 행하여지는 단순한 단위적 노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부가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공헌하는 모든 노동을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영금 외(1989)는 家政勞動이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여 가정노동이 단순작업의 수행이 아니라 관리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가사노동이나 가정노동의 범위가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 여겨지는데 비해 ‘가정생산활동’은 ‘가정밖’에서 수행되는 활동까지로 범위가 확장된다. Beutler와 Owen(1980)은 가정생산을 분리가능한 생산과 분리불가능한 생산으로 구분하면서 후자에 가정내생산, 가정간이진, 지역사회봉사가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가정생산활동이 ‘가정내’에서 ‘가족원들만’을 위한 노동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가족원 이외의 다른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가정생산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Beutler, Owen 그리고 Hefferan(1988)은 가정생산활동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인접 및 공동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접한”을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가정생산의 범위가 물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

지 않으며 따라서 정서적,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가정 외부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가정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활동”이라는 용어는 다른 가정과 함께 노동을 투입하는 경우도 가정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이 이론적으로 가정생산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실증적인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한 연구(김선희, 1991)는 명절이나 관혼상제 등에 개별가족의 가사노동력이 동원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가정생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에 초점을 둔 차성란(1993)의 연구에서는 가정생산의 범위를 ‘인접 및 공동활동’으로 확장시켜 재화나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받는 활동, 근접환경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등을 가정생산에 포함시켜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3. 가정생산의 복지적 기능

가정생산이 구체적으로 본질적, 비본질적 특성을 산출하므로써 가족원들의 위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Beutler와 Owen, 1980)은 가정생산이 가족원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같이 가정생산은 산출물을 통해 복지에 영향을 주며 또한 활동수행 과정에서도 만족감을 준다. Dillard 외(1992)는 가정생산이 실질소득의 증가와 활동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적인 기능을 통해 만족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역시 활동수행과정과 산출물을 통해 가족원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농촌 거주 여성노인의 경우 자매와의 교류가 이들의 높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McGhee, 1985),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한국노인

1) 어떤 하나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생산활동에는 활동을 수행하는 생산자와 그러한 활동을 통해 효용을 얻는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통해 수혜자는 여러 형태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생산자는 자원봉사의 경우처럼 활동수행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과 그것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고히 하는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은 각각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김종숙, 1986) 등은 정서적으로 인접한 친족과의 생산적 활동이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Snell과 Matthews(1986)는 관계를 유지하는데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가정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옥표는 그의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1992)에서 동네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지역사회 안의 모든 정보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근접환경에서의 사적인 모임을 통한 활동이 가족에게 효용을 줄 수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그는 중산층 주부들이 가정밖에서 여러 전략과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 구매를 하는 것이나 친족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목돈 마련이 가계경제에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며 친척,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주부의 개인적 필요를 위한 것이기보다 가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집안일’에 포함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만족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직접적인 영향은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통해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을 얻으며 이에 따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은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반복될 때 생산활동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하며, 형성된 관계망은 ‘잠재적인 자원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접환경을 구성하는 관계망이 가정관리자의 생산활동에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해 줄 때 근접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가정관리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Juster 외(1985)가 시간사용이 인간의 복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설명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시간사용이 단기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며 또한 시간사용이 반복되므로써

형성되는 근접환경의 자산(stocks)과 배경(context)은 장기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Juster et al., 1985)고 하였다. 시간사용이 반복되어 형성되는 근접환경의 자산과 배경은 가정체계와 근접환경체계의 경계영역의 질적인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이다(J.Y. Hyun, 1986). Hyun(1986)은 이를 지지도(supportability)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면서 이같은 환경의 지지도가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험적 자료를 살펴보면 시간사용과 복지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Hyun(1986)의 연구는 미국인들의 전체적인 복지감은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이 가장 큰 기여를 하며, 의무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자녀와의 놀이나 식품구매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복지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Dillard 외(1992)의 연구에서는 부부 중 남편만이 가정생산에 사용한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정생산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의 관계를 조사한 이정수 외(1984)의 연구에서는 소도시 거주가족의 경우 가족관리를 제외한 가사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부부의 생활의 질 인식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산활동은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전자원과 시간자원을 결합하여 가정생산물(home commodity)을 만들어 내는 것(Becker, 1976)이므로 크게 요구와 자원이라는 가정체계의 두가지 투입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족원들의 요구와 자원은 가정의 주어진 조건, 즉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사용가능한 자원을 제공하는 근접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문숙재, 1983). 따라서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교육, 소득, 주부의 건강, 남편의 직업, 주부취업유무, 남편과 주부의 형제서열, 주택형태 등의 가족특성과 근접환경의 시설수준 및 동질성, 친척과의 인접성, 시가 및 친정의 기능수준 등의 근접환경특성을 중심으로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지금까지 조사된 경험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생산활동이 가족특성과 근접환경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가정생산으로 인식되어 오지 못했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하는 활동들이 가정생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것이 다른 가정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므로써 가정관리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특성 및 근접환경특성이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특성, 근접환경특성,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및 근접환경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은 그 범위를 한정시켜 이웃, 결혼 후 분가한 자녀, 시가, 친정, 형제자매 및 친척과의 가정생산활동과 근접환경시설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조직활동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을 포함시켰다. 앞의 5개 생산활동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구매, 가정경영의 6개 영역에 대해 총 3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각 영역에서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빌리는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한 활동을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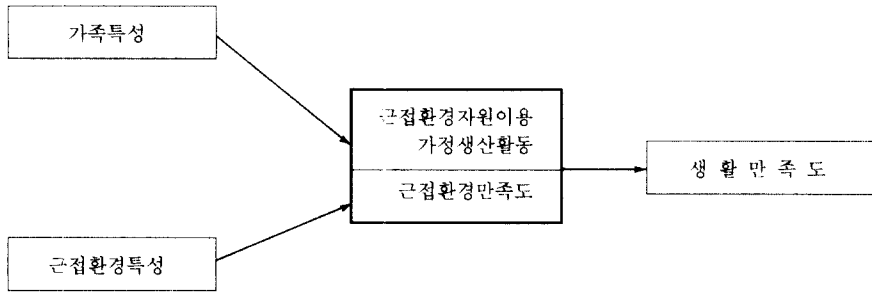
자주 수행하는지에 따라 '어쩌다 한번'에서 '필요할 때 항상'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²⁾

근접환경시설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은 조사한 9개 시설을 어느 정도로 이용하는지를 빈도로 '거의 이용않음'에서 '자주 이용'까지의 4점 척도이다.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공적, 사적인 조직에 참석하는 정도를 '전혀 참석치 않음'에서 '언제나 참석'에 이르는 5점 척도로 하여 합산점수를 사용하였다.³⁾ 그 밖에 시가 및 친정의 기능수준은 양가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합산한 점수로 나타냈다. 양가부모 모두 계시며 건강상태가 '상'이고 경제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가장 기능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동질성은 이웃주민들에 대해 얼마나 동질적으로 느끼는지 '매우 비슷하다'에서 '전혀 비슷하지 않다'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지역안정성은 본 조사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정이 거주하는 區의 전출입률을 조사하였다. 생활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11점 척도의 사다리를 이용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이웃, 시가, 친정, 형제자매 및 친척과의 가정생산활동 척도는 $\text{Alpha} = 0.876$ 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며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가정의 소득과 가정생활주기를 고려한 층화 표집방법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시 거주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1992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본조사는 1992년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에 걸쳐 조사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900

- 2) 활동빈도가 곧 가정생산량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가정생산량은 활동빈도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빈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가정생산량은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생산량이 아니라 조사대상가정이 혜택을 받는 생산량만을 측정하였다.
- 3)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을 활동빈도로 측정하는 것은 실제 가정생산량보다 과대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유치원시설물이나 유치원교사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화된 가정생산활동과 어머니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오가는, 또는 자녀를 보낼 유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정생산활동이混杂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생산량만을 분리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활동빈도를 가정생산량의 대리변수로서 측정하였다.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활동도 비슷한 경우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부 중 최종분석에 사용한 것은 729부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가족특성 및 근접환경특성이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2. 근접환경자원 가정생산활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특성과 근접환경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웃, 기혼자녀, 시가, 친정,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 시설을 이용한 생산활동, 조직참여를 통한 생산활동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표 2). 회귀분석에 포함된 일부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 주부취업유무는 전업주부에 1점, 취업 주부에 0점을 주었다. 주

택형태는 2개의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저층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고층아파트에 1점, 기타 형태의 주택에 0점, 단독주택에 1점, 기타 형태의 주택에 0점을 주었다. 주택소유상태는 자가인 경우에 1점, 임차인 경우에 0점을 주었다.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beta=0.14$), 주부의 건강($\beta=0.12$), 근접환경의 동질성($\beta=0.09$) 등이었다. 즉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수록, 주부가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근접환경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을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부의 건강이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Ward(198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수록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어 이들과의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생활주기($\beta=0.49$), 가족수($\beta=-0.35$), 거주기간($\beta=0.14$), 시가와의 거리($\beta=-0.14$), 지역의 안정성($\beta=0.09$)이었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후기일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역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정은 가능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부부만 남는 경우가 될 때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N = 729)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가족수	2인 이하	106 (14.5)	남편의 직업	무직, 은퇴	21 (2.9)
	3인	141 (19.3)		반준노무자	38 (5.2)
	4인	316 (43.3)		자영업자	134 (18.4)
	5인 이상	166 (22.8)		사무직, 기술직	222 (30.5)
가정생활주기	신혼기	99 (13.6)	전문직, 관리직	255 (35.1)	
	학령전기	151 (20.7)	중소기업주,	57 (7.8)	
	초등교육기	143 (19.6)	고위관리직		
	중,고등교육기	157 (21.5)	주부	전업주부	507 (69.5)
주부의 교육수준	대학교육기	84 (11.5)	취업유무	취업주부	222 (30.5)
	자녀독립기	95 (13.0)	남편의	장남	337 (46.2)
	중학교 이하	67 (9.2)	형제서열	차남 이하	392 (53.8)
	고등학교	240 (32.9)	주부의	장녀	339 (46.5)
가정소득	대학교	368 (50.5)	형제서열	차녀 이하	390 (53.5)
	대학원이상	54 (7.4)	주택형태	고층아파트	308 (42.2)
	100만원 이하	123 (16.9)		서층아파트	91 (12.5)
	101-150	189 (25.9)		단독주택	185 (25.4)
151-200	182 (25.0)		연립주택	128 (17.6)	
201-250	99 (13.6)		기타	17 (2.3)	
251만원 이상	136 (18.7)	주택	자가	474 (65.0)	
		소유상태	임차	255 (35.0)	

을 나타낸다.

시가와와 가정생산활동은 시가의 기능수준($\beta = 0.35$), 시가와와 거리($\beta = -0.27$), 가정생활주기($\beta = -0.21$), 주부의 교육수준($\beta = 0.13$),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beta = 0.09$), 남편의 형제서열($\beta = -0.09$), 가족수($\beta = -0.09$), 시가형제자매와의 거리($\beta = -0.08$)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가의 기능수준이 높을수록, 시가와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정생활주기가 전기일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수록, 남편의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시가형제자매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났다. 시가의 기능수준이 높을수록 시가와와 가정생산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동능력에 비해 재정적 능력은 덜 감소하며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Cheal (1983)의 주장과 일치한다.

친정과의 가정생산활동은 친정의 기능수준($\beta = 0.27$), 가정생활주기($\beta = -0.25$), 친정과의 거리($\beta = -0.22$), 주부의 형제서열($\beta = 0.13$), 주부의 교육수준($\beta = 0.09$), 주부취업유무($\beta = -0.09$),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beta = 0.08$), 주부의 건강($\beta = -0.07$) 등이었다. 즉 친정의 기능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주기가 전기일수록, 친정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부의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일 때,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부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친정과의 가정생산활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정부모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수록 자녀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주부의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친정과의 가정생산활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신혼기 가정의 주부는 가정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주부인 경우는 부족한 시간자원을 보충하

〈표 2〉 가정생산활동에 대한 회귀분석표

독립변수		이웃 B (β)	기혼자녀 B (β)	시가 B (β)	친정 B (β)
가족특성	가족수	0.89(0.06)	-3.17(-0.35)***	-0.87(-0.09)*	0.06 (0.00)
	가정생활주기	0.45(0.05)	2.76(0.49)***	-1.30(-0.21)***	-2.69 (-0.25)***
	남편의 직업	0.13(0.01)	0.47(0.06)	-0.13(-0.02)	0.79 (0.05)
	주부 교육수준	-0.84(-0.05)	-0.76(-0.07)	1.63(0.13)**	2.09 (0.10)*
	가정소득	0.01(0.02)	-0.01(-0.03)	-0.00(-0.02)	0.00 (0.01)
	주부취업(#)	2.08(0.06)	-0.13(-0.01)	-0.33(-0.02)	-3.64 (-0.09)**
	주부 건강	2.21(0.12)**	-0.04(-0.00)	0.67(0.05)	-1.54 (-0.07)*
	남편 형제서열	0.05(0.01)	-0.14(-0.02)	-0.79(-0.09)**	0.21 (0.01)
	주부 형제서열	-0.44(-0.04)	-0.26(-0.04)	-0.27(-0.03)	-1.84 (-0.13)***
	고층아파트(#)	-1.09(-0.04)	0.26(0.01)	0.25(0.01)	-1.10 (-0.03)
	단독주택(#)	-1.83(-0.05)	-0.29(-0.01)	1.51(0.06)	-0.26 (-0.01)
	주택소유(#)	1.36(0.04)	-0.69(-0.04)	0.61(0.03)	-0.38 (-0.01)
	거주기간	0.03(0.08)	0.03(0.14)***	-0.01(-0.05)	-0.03 (-0.06)
근접환경특성	시설수준	0.14(0.04)	-0.14(-0.06)	0.14(0.06)	0.22 (0.05)
	지역인구밀도	123.87(0.05)	11.82(-0.01)	21.67(-0.01)	-101.87 (-0.04)
	지역안정성	10.09(0.02)	25.59(0.10)**	-3.97(-0.01)	-10.37 (-0.02)
	시가와와 거리	0.88(0.09)	-0.80(-0.14)**	-1.73(-0.27)***	0.04 (0.00)
	친정과의 거리	0.72(0.07)	-0.37(-0.06)	0.36(0.05)	-2.69 (-0.22)***
	시가형제 거리	0.07(0.00)	-0.18(-0.02)	-0.78(-0.08)*	-0.42 (-0.02)
	친정형제 거리	2.07(0.14)**	-0.19(-0.02)	0.89(0.09)*	-1.41 (-0.08)*
	시가 기능수준	-0.14(-0.06)	0.13(0.09)	0.56(0.35)***	-0.16 (-0.06)
	친정 기능수준	-0.18(-0.07)	-0.11(-0.07)	-0.16(-0.09)	0.83 (0.27)***
	동질성	2.93(0.09)*	0.04(0.00)	1.45(0.07)	-1.00 (-0.03)
회귀상수	-21.67	-1.54	2.29	33.39	
R2	0.12***	0.33**	0.28***	0.30***	
F 값	3.52	12.79	8.66	10.89	
독립변수		형제자매 B (β)	시설 B (β)	조식 B (β)	
가족특성	가족수	2.06(0.13)**	0.32(0.08)	0.17(0.09)	
	가정생활주기	-0.05(-0.01)	-0.29(-0.13)*	0.18(0.14)*	
	남편의 직업	-0.99(-0.07)	0.09(0.03)	0.11(0.07)	
	주부 교육수준	-0.86(-0.04)	0.29(0.06)	0.07(0.03)	
	가정소득	-0.00(-0.02)	0.00(0.01)	-0.00(-0.02)	
	주부취업(#)	-0.76(-0.02)	0.51(0.06)	0.27(0.06)	
	주부 건강	-0.27(-0.01)	-0.03(-0.01)	0.19(0.07)	
	남편 형제서열	0.72(0.05)	-0.25(-0.08)*	0.01(0.01)	
	주부 형제서열	3.02(0.23)***	0.12(0.04)	0.03(0.02)	
	고층아파트(#)	1.68(0.05)	-0.92(-0.12)*	0.19(0.05)	
	단독주택(#)	1.89(0.05)	-0.10(-0.01)	-0.15(-0.03)	
	주택소유(#)	-0.11(-0.00)	0.77(0.09)*	0.39(0.09)*	
	거주기간	-0.02(-0.06)	-0.00(-0.03)	-0.00(-0.01)	
근접환경특성	시설수준	-0.04(-0.01)	0.41(0.42)***	0.05(0.10)**	
	지역인구밀도	147.04(0.06)	50.01(0.08)*	3.24(0.01)	
	지역안정성	-31.95(-0.07)	3.87(0.03)	0.77(0.01)	
	시가와와 거리	-0.77(-0.07)	-0.09(-0.04)	0.01(0.01)	
	친정과의 거리	1.41(0.12)*	-0.05(-0.02)	0.07(0.05)	
	시가형제 거리	1.93(0.12)**	0.03(0.01)	-0.07(-0.03)	
	친정형제 거리	-2.99(-0.18)***	0.12(0.03)	0.04(0.02)	
	시가 기능수준	0.19(0.08)	-0.04(-0.06)	-0.00(-0.01)	
	친정 기능수준	-0.28(-0.10)	0.03(0.04)	-0.03(-0.07)	
	동질성	0.89(0.03)	0.21(0.03)	0.44(0.11)**	
회귀상수	24.71	6.61	-0.73		
R2	0.13***	0.25***	0.17***		
F 값	3.72	8.23	5.21		

* P < .05, ** P < .01, *** P < .001, (#) 가변수

기 위해 친정과의 가정생산활동을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제자매와의 가정생산활동은 주부의 형제서열($\beta=0.23$),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beta=-0.18$), 가족수($\beta=0.13$), 친정과의 거리($\beta=0.12$), 시가형제자매와의 거리($\beta=0.12$)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형제서열이 낮을수록,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친정과의 거리가 멀수록, 시가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수록 형제자매와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부의 형제서열이 낮을수록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거나 활동력이 약화되어 대신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친정이나 시가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고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이 많아지고 있음은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이 주로 친정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근접환경시설수준($\beta=0.42$), 가정생활주기($\beta=-0.13$), 고층아파트가변수($\beta=-0.12$), 주택소유상태 가변수($\beta=0.09$), 지역의 인구밀도($\beta=0.08$), 남편의 형제서열($\beta=-0.08$)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환경시설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주기가 진기일수록, 고층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을 소유했을 때,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은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 거주자에 비해 물리적으로 가까운 근접환경시설들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 시설이용이 거주지역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고층아파트가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접환경시설수준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근접환경의 시설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높아지는 것은 주택의 소유가 근린에의 관여수준을 높이며 따라서 근린내의 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강대기 외, 1982, 강대기, 1983,

최성기, 1984).

공적, 사적 조직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가정생활주기($\beta=0.14$), 근접환경의 동질성($\beta=0.11$), 근접환경시설수준($\beta=0.10$), 주택소유상태 가변수($\beta=0.09$)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후기일수록, 근접환경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근접환경시설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조직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생활주기가 후기일수록 가사와 자녀돌보기로 인한 시간적인 융통성의 제약이 감소하며, 외출시 자녀를 동반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장소로 이동할 때 제약을 덜 받기(Saegert, 1981) 때문일 것이다. 자가소유자는 근접환경에서의 공적 조직활동에 좀더 비용 투자가 쉬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참여를 통한 생산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근접환경자원 가정생산활동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는 가족특성과 근접환경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2단계는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과 근접환경만족도까지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과 근접환경은 시간사용과 시간사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자산(stock) 및 배경(context)과의 관계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가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련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피기 위한 단계별 중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가족특성과 근접환경특성이 생활만족도를 14.3%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2단계에서는 근접환경자원 생산활동과 근접환경만족도를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은 27.1%로 12.8%가 증가하여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과 근접환경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많

〈표 3〉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회귀계수 B (β)	회귀계수 B (β)
가족특성 및 근접환경 특성	가족수	-0.03 (0.02)	0.05 (0.03)
	가정생활주기	-0.08 (-0.09)	-0.15 (-0.16)**
	주부의 교육수준	0.16 (0.08)	0.10 (0.05)
	가정소득	0.00 (0.08)	0.00 (0.05)
	주부의 건강	0.31 (0.16)***	0.28 (0.14)***
	거주기간	-0.00 (-0.02)	-0.00 (-0.03)
	남편의 직업	0.20 (0.16)***	0.20 (0.16)***
	근접환경의 시설수준	0.01 (0.02)	0.01 (0.01)
	근접환경의 동질성	0.17 (0.05)	-0.01 (-0.00)
	주택소유상태(#)	0.21 (0.06)	0.26 (0.08)
	고층아파트(#)	0.11 (0.03)	0.01 (0.00)
단독주택(#)	0.26 (0.07)	0.22 (0.06)	
가정생산 활동 및 근접환경 만족도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		-0.01 (-0.07)
	기혼자녀 가정생산활동		0.02 (0.09)*
	시가와와의 가정생산활동		0.01 (0.06)
	친가와와의 가정생산활동		0.01 (0.06)
	형제자매 가정생산활동		0.01 (0.10)**
	시설 이용 가정생산활동		-0.04 (-0.10)*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활동		0.09 (0.11)**
	근접환경 만족도		0.09 (0.19)***
회귀상수		3.39	
R2		0.14***	0.27***
F 값		8.20	11.20

* P < .05, ** P < .01, *** P < .00

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단계의 회귀분석에서는 주부의 건강($\beta=0.16$), 남편의 직업($\beta=0.16$)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건강할수록,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단계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적 근접환경만족($\beta=0.19$)이었다. 다음으로는 가정생활주기($\beta=-0.16$), 남편의 직업($\beta=0.16$), 주부의 건강($\beta=0.14$),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beta=0.11$), 형제자매와의 가정생산($\beta=0.10$), 시설을 이용한 가정생산($\beta=-0.10$) 기혼

자녀와의 가정생산($\beta=0.09$)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접환경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할수록, 가정생활주기가 전기일수록,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주부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빈번할수록, 형제자매와의 가정생산활동이 빈번할수록, 시설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적을수록,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이 빈번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은 27.1%였다.

여러 유형의 가정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조직참여를 통한 생산활동, 형제자매,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은 정

적인 영향을, 그리고 시설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녀로부터의 물질적, 정서적 원조는 노인들의 복지와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Stephens 외, 1984, Stoller, 1985) 입증되어 왔다. 시설 이용을 통한 가정생산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매시설, 급용시설, 의료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여 가정생산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으로서 주부들에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Hyun(1986)의 연구에서 식품구매에 사용하는 시간이 예상과는 달리 미국인들의 복지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중영(1986)의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가 미국인들의 전체적인 복지감을 고무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을 지적하였으며 Arling(1976)의 연구에서는 친구나 이웃과의 유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가정생산을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의 자원을 교환하는 가정생산활동으로 측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활동, 형제자매와의 가정생산활동,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 등 근접환경에서의 가정생산활동이 주부들의 생활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는 가정생산활동의 질적인 변화로 육체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생산활동은 감소하는데 비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관리적 노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생산활동이 가족원이나 가정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가정과 정서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접환경에서의 생산활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생산활동들이 가정생산으로 인식되지 못하므로써 가정생산활동의 주담당자인 주부들은 소비적인 활동만을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며 가정생산의 화폐가치 평가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고려되지 못하므로써 법률적, 보상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다른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 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은 건강과 같은 개인의 인적 자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이웃과의 가정생산활동에 두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는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생산활동이 특히 금전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자원제장에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임을 말해준다.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정생산을 사회화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족한 자원을 가정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은 노부모세대보다는 기혼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대안적인 생산활동방식이다.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은 가정생활주기가 후기일수록 뿐만 아니라 가족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일지라도 미혼자녀가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 기혼자녀로부터 도움을 덜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혼기 가정, 또는 자녀출산기 가정의 주부일수록 시가 및 친정과의 가정생산활동을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생활주기가 전기에 가깝고 가족수가 적은 가정은 생활주기에 따른 중요한 과업이 자녀출산 및 양육이므로 친정이나 시가와의 생산활동을 통해 자녀돌보기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친정은 친정부모 뿐 아니라 친정형제자매와

의 가정생산활동을 통해 중요한 잠재적 자원제공원이 되고 있다.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어 이들과의 생산활동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시가와의 가정생산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형제자매와의 가정생산활동은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가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수록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친정과 가정생산활동은 친정형제자매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있어 친정형제자매는 친정과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째, 친정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은 다른 친척과의 생산활동이 어려운 경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은 친정과 거리가 먼 경우, 시가형제와의 거리가 먼 경우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은 형제서열이 낮을수록 높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윗형제가 아래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근접환경의 시설수준과 같은 물리적 조건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산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생산활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주기가 전기일수록, 남편의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비슷한 가족특성을 지니지만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의 경우는 시설수준이 높을수록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가정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은 그 가정이 지닌 근접환경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시가 및 친정과 가정생산활동은 시가나 친정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능력과 같은 기능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와의 물리적인 거리, 남편이나 주부의 형제서열, 친정형제자매와의 물리적인 거리 등이 또한 어떤 형태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빈번하게 수행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이 구조적으로 친척과의 생산활동이 어려운 가정이 이용가능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어떤 유형의 가정생산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근접환경조건이 생산활동 정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근접환경의 지지도가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나아가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일곱째, 조직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형태의 가정생산활동과는 상이한 이유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조직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재화나 서비스보다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는데 가정관리자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의, 식, 주생활 영역에서 재화를 투입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때문에 조직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좀 더 긴급한 이유로서 또는 가정관리자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주부들은 친정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계망을 잘 형성하고 있으며 형제서열이나 부모가정의 기능수준, 친척과의 물리적인 거리 등과 같은 근접환경의 정서적인 측면이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특성과 근접환경특성만을 포함시킨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생활만족도가 14.3% 설명되는데 비해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및 근접환경만족도를 포함시킨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이 27.1%로 12.8%의 설명력 증가가 있었다. 이는 곧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욕구충족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가정생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중 조직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많을수록, 형제자매와의 가정생산활동이 많을수록,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활동이 많을수록,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참여를 통한 가정생산활동은 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생활만

족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제자매, 기혼자녀, 조직을 통한 가정생산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가정생산활동들은 가정체계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원사용에 있어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때, 근접환경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정체계유지를 보완 또는 대체해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기혼자녀와의 가정생산은 그것이 약화된 신체적 건강과 재정적인 능력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원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또한 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로부터 부모부양의 규범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해서 정서적인 안정성을 도모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가정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가정관리자가 다른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생산의 산출물이 생활만족도에 기여한다는 것은 가정생산을 통해 직접 효용을 누리게 되는 가족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웃과의 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 형태의 자원교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여기에는 주고 받는 호혜성의 규범이 더 크게 작용하므로 다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관계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비용이 드는 일로서 생활을 비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근접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근접환경이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위해 잠재적인 자원으로써 여겨질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중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응답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이용을 통한 가정생산활동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족원들의 생활만족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위해 여러 유형의 생산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근접환경의 지지도에 대한 설문지의 표준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대기, 홍동식, "대도시 주거환경과 근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권, 1982.
- 2) 강대기, "아파트지역의 주민의식과 근린관계 - 부산의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18호, 1983.
- 3)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
- 4) 김종숙,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6.
- 5) 문숙재, "사회보상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안전기능", 대한가정학회지, 21권 4호, 1983.
- 6) 문숙재,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1990.
- 7) 문옥표,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8) 伊藤 外, 가사노동, 광생관, 1981.
- 9) 이정수 외,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권 2호, 1984, pp.103-132.
- 10) 임정빈, "가정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No.2, 1984, pp.117-131.
- 11) 정영규,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9.
- 12) 차성관, "도시주부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 13) 최성기, "한국 중소도시에 있어서의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14) Arling, G., "Resistance to Isolation among Elderly Widow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 Human Development, 7, January, 1976, pp.67-87.
- 15) Becker, Gary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Vol.75, No.299, 1965, pp.493-517.
- 16) Beutler, Ivan F. and Alma J. Owen,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ERJ, Vol.9, No.1, 1980, pp.16-26.
- 17) Beutler, Ivan F., Alma J. Owen, Colien Hefferan, "The Boundary Question In Household Production: A Systems Model Approach", HERJ, Vol. 16, No.4, 1988, pp.267-278.
- 18) Cheal, David J., "Intergenerational Family Transfe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83, pp.805-813.
- 19) Hyun, Joong-Young, "Time Use, Neighborhood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Well-Being of Americans", Ph. D., Univ. of Michigan, 1986.
- 20) Juster, F.T. and F.P. Stafford(ed.), Time, Goods and Well-Being,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5.
- 21) McGhee, J.L., "The Effects of Sibling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85, pp.85-91.
- 22) Snell, M. Leslie and Anne Martin Matthews, "Family Interaction of the Young-Old: Social Exchange as an Explanation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eri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8, 1986, pp.395-407.
- 23) Stephens, M.A.P. and M.M. Bernstein, "The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mong Residents of Planned Housing", The Gerontologist, Vol.24, No. 2, 1984, pp.144-148.
- 24) Stoller, Eleanor Palo, "Exchange Patterns in the Informal Support Networks of the Elderly: The Impact of Reciprocity on Mora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85.
- 25) Walker, K.E. and Margaret E. Woods,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